

### 빈민 지역에 돈만 던져줘선 불평등 못 푼다

하버드대 맨큐 교수-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 제417호 | 20150308 입력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철저한 교육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57)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사공일 본사 고문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렇기 말하며 “빈민 지역에 돈만 던져 주는 방식으로는 교육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나 복지제도는 이미 나타난 증상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증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담은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그는 2003년 45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을 맡았다.

맨큐는 “불평등은 지난 40년에 걸쳐 생겨난 현상이므로 단기적인 해법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올 초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사공 고문이 “자산가 워런 버핏은 비서의 납세율이 자기보다 높다고 한다”고 하자 맨큐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진세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부자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일각에서 주장하듯 인플레이션 조짐이 확연할 때까지 (인상시기를) 기다리면 실기(失期)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 그의 지도교수였던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사공 고문과의 대담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것과는 반대 의견이다.



사공일

맨큐

맨큐의 주장을 입증하듯 미국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계절조정)가 29만5000명을 기록해 12개월 연속 20만 명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이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6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업률은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5.5%까지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지속될 수 있는 완전고용 범위(5.2~5.5%)



#### □ 관련기사

“美, 자국 필요 따라 금리 조절 ... 각국 경제 스스로 지켜야”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

불평등 치료하려면 소득보다 소비에 세금 물려야

부의 상속 → 자본축적 부의 재분배 기여 주장

의 상단에 일치한다”고 전했다.

맨큐 교수는 또 이미 7판까지 나온 『맨큐의 경제학』에 대한 개정작업을 올여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 고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용어나 정책 측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하자 “기존의 책에 등장하지 않았던 ‘레버리지(leverage)’ 같은 개념을 포함해 광범위한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은 세율 책정 과정이 가장 왜곡된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소득보다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누진적 소비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제나 최저임금 인상 노력은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지워 비숙련 노동자를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추천했다.

맨큐 교수는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는 한국의 교육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공 고문은 “공교육의 질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교육이 등장했고, 사교육 열풍은 세대 간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계기사 10~11p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mailto:blast@joongang.co.kr)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



# “美, 자국 필요 따라 금리 조절 ... 각국 경제 스스로 지켜야”

[중앙SUNDAY 창간 8주년 기획] 맨큐와 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 제417호 | 20150308 입력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그레고리 맨큐 교수를 만나자 덕담부터 건넸다. “최근 세계 최고의 경제 분야 석학, 정책 입안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연쇄 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가 당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자 맨큐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한 뒤 곧바로 대담에 들어갔다. 두 석학은 불평등의 문제, 자본주의의 미래, 조세제도의 형평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맨큐 교수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경제 발전의 비결”이라며 “한국인들이 교육을 중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공일 본사 고문(왼쪽)과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연구실에서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해 대담을 했다. 안성규 JTBC 기자

## [불평등 해법]

▶사공=불평등에 대해 얘기해 보자.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은 늘어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편이다. 지난 4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맨큐=그렇다. 미국의 불평등 문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심해져 1980~2000년 사이에 가장 심화됐다. 40년 전부터 생긴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 자체를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사이에 어느 정도 평등적인 측면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이를 위해 무엇이 불평등을 초래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 점에서 토마 피케티의 책은 최고의 진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 최고의 진단은 내 하버드 동료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래리 캐츠가 쓴 책 『교육과 기술의 경쟁(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에 나와 있다.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있다. 숙련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앞서 나갈 수 있는 반면 비숙련 노동



- 1958년 미국 뉴저지 출생
-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학과장
- 미국경제학회(AEA) 부회장
-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의장 역임
- 프린스턴대 경제학 학사, MIT 경제학 박사

### □ 관련기사

- 빈민 지역에 돈만 던져줘선 불평등 못 푼다
-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
- 불평등 치료하려면 소득보다 소비에 세금 물려야
- 부의 상속 → 자본축적 부의 재분배 기여 주장



자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신봉한다면 해답은 교육밖에 없다.

▶사공=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globalization)도 불평등 증가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자는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맨큐=맞는 얘기다. 하지만 난 불평등 해소에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데 40년이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사공=그래도 단기적으로 조세제도나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맨큐=그런 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증상을 치료할 뿐이다.

▶사공=세계적인 자산가 워런 버핏은 자기 비서의 납세 비율이 자신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맨큐=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버핏의 세금명세서를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미국의 조세 제도는 누진제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공=버핏은 자신의 세율이 17%, 비서는 36%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맨큐=그 숫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는가. 기업들이 자기 대신 법인세를 내준다는 생각은 왜 안 하나. 버핏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렸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에서 펴낸 공식 자료를 보면 미국의 세제가 누진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사공=미국에선 지방세로 교육을 지원한다. 따라서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회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맨큐=교육 시스템에서 불평등의 해법을 찾는 건 바른 생각이다. 하지만 재정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도시 빈민 지역의 학교가 교외 지역의 학교보다 낙후된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보다 그곳의 학생들이 마약·실업·결손가정 같은 문제가 많은 가정 출신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 빈민 지역의 학교들은 이런 사회 병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뒤쳐진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항상 교육예산을 늘리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냥 돈만 던져 주는 방식으로는 미국의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공=현재 디플레이션은 또 다른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스웨덴·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맨큐=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여러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임금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일이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미국 경제는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워지면서 향후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로 하는 2%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연준은 일을 잘하고 있다. 특히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지난 10년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칫 재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미국 경제를 살려냈다.

▶사공=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맨큐=그렇다.

▶사공=여기 오기 전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도 대담을 나눴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완연할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확연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실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당신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나.

▶맨큐=서머스 전 장관을 존경한다. 내가 학생 때 지도교수였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다(웃음). 인플레 조정이 완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실제 효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변수도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금리 인상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겠지만 더 오래 제로 금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금리를 조금 인상함으로써 시장에 금리의 향방을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공=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여건 속에서 당신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라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겠나.

▶맨큐=지금이나, 6개월 뒤냐 하는 것보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올린다고 하겠다.

▶사공=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 자본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자본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본다.

▶맨큐=그렇다. 하지만 연준은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연준의 의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얼마나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는 스스로 자국 경제를 지켜야 한다.

▶사공=물론 맞는 말이다. 미국 연준은 미국 자체 경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를 국제 경제 협력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



###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

[중앙SUNDAY 창간 8주년 기획] 맨큐와 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 제417호 | 20150308 입력

#### [자본주의 미래]

▶사공=이번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해 말해보자. 래리 서머스 전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맨큐=장기침체라는 용어 자체를 나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문제라고 본다.

▶사공=(구조적 장기침체를 처음 주장한) 앨빈 핸슨(1887~1975년) 전 하버드대 교수도 수요의 문제로 봤다.

▶맨큐=하지만 난 (기술의 발전, 인구 증가 등 성장의 요소가 모두 소진돼) 경기 침체가 영원히 지속한다는 핸슨의 가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공급 측면의 문제, 즉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효율성 증대는 어디에서 올 것인가 등에 대한 예측은 그동안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

▶사공=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많아 장기 침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물어보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경제학 원론 개정판을 낸 게 언제가.

▶맨큐=2년 전이다. 올여름에 새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사공=개정은 꼭 필요할 것이다. 경제학 이론이나 정책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났으니까….

▶맨큐=금융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있다. 우선 연준이 새로운 정책 도구(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또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시경제에서 은행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있다. 기존의 내 교과서엔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나는 레버리지가 뭔지 알고 있지만 그걸 대학 1학년생들에게 가르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고 보니 레버리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은행 자본 등과 관련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사공=디플레이션, 장기침체, 불평등 등에 대해 앞에서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 □ 관련기사

빈민 지역에 돈만 던져줘선 불평등 못 푼다

“美, 자국 필요 따라 금리 조절 … 각국 경제 스스로 지켜야”

불평등 치료하려면 소득보다 소비에 세금 물려야

부의 상속 → 자본축적 부의 재분배 기여 주장

당신의 생각은.

▶ 맨큐=나는 정부의 관여가 적을수록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밀턴 프리드먼 정도의 자유방임주의자(libertarian)는 아니지만 정부 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최근의 정책 흐름,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흐름은 그렇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나 금융산업에 있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 노조의 역할도 강화됐다. 시장에 좀 더 의존하고, 경제적 자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쟁이다.

▶ 사공=금융감독 측면에선 어떤가.

▶ 맨큐=나는 금융규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금융회사들과 리스크를 낮추려는 감독 당국 간에는 항상 줄다리기가 있게 마련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는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 당국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해서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 사공=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것으로 봤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유로존을 어떻게 보나.

▶ 맨큐=유로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리스와 독일 사이의 채무 조정 문제, 그리스와 독일 및 여타 유럽 국가의 납세자들 간 손실 분담 문제 등이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은 디플레이션 위험도 있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버냉키 전 연준 총재가 몇 년 전에 한 일을 따라하고 있다.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

▶ 사공=금리 여건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



## 불평등 치료하려면 소득보다 소비에 세금 물려야

[중앙SUNDAY 창간 8주년 기획] 맨큐와 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 제417호 | 20150308 입력

### [조세제도]

▶사공=당신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었을 때(2003~2005년) 주 정책 관심사는 무엇이었나.

▶맨큐=조세제도가 큰 정책 이슈였다. 미국의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 40%였던 것을 퇴임할 때 15%까지 낮춘 것으로 기억된다. 부시 대통령은 보다 광범위한 조세개혁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2기 부시 행정부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사공=당신은 누진적 소비세(progressive consumption tax)를 주장하기도 했다.

▶맨큐=그렇다. 좀 전에 불평등 얘기를 했는데, 첫째 문제는 불평등의 근원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불평등의 증상을 치료하려면 누진적 소비세가 필요하다. 나는 조세제도에도 좋은 방식과 나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에 과세하는 게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공=법인세에 대한 의견은.

▶맨큐=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세율이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자본에 대한 세금의 세율 책정 과정이 가장 왜곡됐다. 그래서 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소비에 대한 세금을 지지한다. 다른 이슈는 법인세의 과세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선 특정 국가 안에서 일어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미국이 대다수 국가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개혁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법인세제 개혁을 주장하지만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버락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공=미국의 법인세는 상당히 높다.

▶맨큐=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사공=한국은 22% 정도다. 마침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



### □ 관련기사

빈민 지역에 돈만 던져줘선 불평등 못 푼다

“美, 자국 필요 따라 금리 조절 ... 각국 경제 스스로 지켜야”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많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

부의 상속 → 자본축적 부의 재분배 기여 주장



르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18% 정도다. 당신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지지한다.

▶ 맨큐=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다.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는 빈곤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왜 고용주가 특별한 부담을 안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빈곤층을 점점 고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력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비숙련 노동자를 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을 도우면서도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사공=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언젠가.

▶ 맨큐=2년 전이다. 한국 경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말 교육을 중시한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인적 자원이 경제 발전 성공의 비결이다. 미국은 교육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아닌가.

▶ 사공=그렇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다. 그리고 공교육의 질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교육은 세대 간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한국은 전통적·문화적으로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 맨큐=그건 정말 좋은 일이다.

▶ 사공=그렇다. 따라서 한국에선 '양질의 교육' 공급에만 힘쓰면 된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